

기획연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경(1) : 영국

# 영국 노동당 결성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단체들의 역할

## 최재희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글머리에

영국노동당의 결성과 발전과정은 자본주의 지배권력이 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속에서 노동자와 사회주의의 힘만으로 기존질서내에서 성공적인 정당으로 성장한 흔치않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영국노동당의 정당 건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영국노동당에 관한 흥미로운 논의중의 하나는 비슷한 발전경로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고 1867년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에서는 노동자정당이나 사회주의정당의 결성이 상대적으로 늦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최초의 산업국가로서 영국이 가지고있던 경제적 우월성에서 영국 노동자 특유의 문화적 특성<sup>1)</sup>에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결국 영국노동조합의 보수성의 문제

1) 문화적 특성에 관해서는 T. Nairn, *The English Working Class*, in R. Blackburn ed), *Ideology in Social Science*, 1979.를 참조하라.

와 연결되며 다시 노동당결성의 주체 및 노동당의 성격규정의 문제에까지 확대된다.

이른바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로 노자간의 갈등이 침예해지던 19세기 말 제국주의시대에 영국의 노동조합은 보수성과 조합이기주의, 경제주의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었다. 이런 조합들을 정당건설의 길로 추동한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이것이 아 글의 첫 번째 주제이다. 그 해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정당이 필요한 이유와 노동자정당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동시에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자정당에 대한 입장 및 건설방법론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서로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당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를 수 있었던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한 정파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입장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덧붙인다.

## 2. 변화의 시작.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세력화

### 1) 자본가들의 공세와 테프 베일 판결

최초로 산업혁명을 완수한 이래 영국은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70년대 이래 주기적이고 만성적인 공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해외시장에서도 서구 각국의 치열한 도전에 직면한다. 특히 철강과 석탄 등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독일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도전은 영국 자본가계급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성장일변도의 경제가 가져다주었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훼손되었고 커져가던 노동문제는 자본의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변화된 조건에서 자본가계급은 국가경쟁력의 회복과 제고를 주창하면서 대내외적인 공세를 취한다. 외부에 대해서는 보어전쟁과 같

은 제국주의 침략의 강화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자본가들은 미국이나 독일의 상품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이들 나라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영국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가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한다. 즉 노동자들의 힘의 원천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킴으로써 임금삭감과 노동시간의 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자본가들은 자신들끼리의 연합을 추진했다. 이미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동일업종 내에 자본가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요구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었다. 나아가 1893년에 파업파괴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자유노동자협회나 자유노동보호동맹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국가, 즉 '법률의 힘'을 통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로운 계약과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회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를 통하여 의회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얻어내려 했다. 노동조합의 제반 권리들 보장한 1871년과 1875년의 '노동조합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 법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고,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라는 청원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자본의 정치적·법률적 공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00년의 '테프 베일' 판결이다.

1900년 웨일즈 남부에 위치한 테프 베일 철도회사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법원에 두 개의 소송을 제기한다. 첫째는 파업파괴자들의 대체고용을 방해하는 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노조의 행위가 불법이며 2만3천 파운드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미법 체계에서 판례의 변화는 곧 법률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산업혁

명의 와중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결사를 금지했던 1799년의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이 1824년에 폐지된 이래 노조의 파업권은 비록 법적으로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또는 경험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테프 베일의 판결로 인해 파업권은 사실상 부인되었으며 노조의 모든 일상행위도 손해배상의 위협아래 놓이게 되었다.

차티즘운동의 몰락 이후 당시의 영국 노동조합들은 정치투쟁보다는 조직의 유지와 기업내의 일상적인 경제투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본의 공세는 노조에 다시금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2) 보수당 정부의 반노조 정책

더구나 1895년 보수당정권의 등장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시켰다. 보수당 정부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보다 '더 이성적이면서 덜 야만적인' 쟁의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는 명분 하에 1896년 노동쟁의조정법(Conciliation Act of 1896)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사 일방의 요구에 의해 중재자를 임명하고 분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의 지도자들은 결국 이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이 법이 자신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성이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1897년의 노동자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이 고용주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보수당의 지도자 챔벌레인은 노조의 태도에 실망감을 표하고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한다.

## 3) 내부로부터의 변화 - 노동조합회의(TUC), 신조합주의의 등장

한편 노동조합의 정치화는 영국 노동운동 내부로부터도 전개되기 시

작했다. 이것은 영국노총, 즉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TUC는 1867년의 제2차 선거법개정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이 확보되자 노동자의 권익을옹호하고 개선시키는 목적을 위해 1868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TUC는 '노동자의 의회'임을, 그리고 그 조직의 수뇌부 격이었던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 e)<sup>2)</sup>는 노동자의 내각임을 표방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총의를 모으고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기보다는 1년에 한번씩 모여 형식적으로 협안을 토의하고 대의적으로 노동계의 단결을 과시하는 정도의 상징적인 조직에 불과했다.

또한 TUC는 그 활동기조에 있어서도 대단히 보수적인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에 비해서-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동조합회의의 주도권은 전투적인 노선을 포기하고 상호부조적인 공제활동에 집중하는 온건노조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기계, 광산, 섬유노조 등 핵심조직들은 풍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으로 자본가와의 대립보다는 비노조원들이 해당 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노조와 숙련노동자들의 '체면(respectability)'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직업별 노조주의(craft unionism)의 전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 노조들은 자본가가 아니라 하층의 노동자와의 경쟁을 통해 생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TUC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세력들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공생을 유도하고 있었다. 정부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기금을 보호해 줌으로써 이들을 후원하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TUC, 특히 의회위원회는 독자적인 노동자계급 정당보다는 기존 정당들과의 연대에 중점을 두었고, 그것도 전체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대규모 노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875년의 노동법으로 자신들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 때 TUC는 자발적으로 자유당의 보조기관이 되어 버렸다<sup>3)</sup>. 내무차관으로까

2) 의회위원회의 공식적인 임무는 노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법과정을 주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3) 영국 부르주아와 정치적으로 외식화된 노동계급의 대부분은 평화, 국가예산의 감

지 올라간 TUC의 서기(사무총장) H. 브로드허스트를 비롯하여 10여명의 노조 지도자들이 자유당의 후원으로 의회에 진출한 뒤에는 자유당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강조하던 자유당의 몰락과 노조에 적대적인 보수당 정권의 등장은 '자유-노동' 공존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집권 여당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는 TUC 지도부의 전략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자유당의 행태는 TUC로 하여금 기존 정당과의 연대보다는 독자적인 정당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제했다.

이와 더불어 1889년 이후 일기 시작한 '신조합주의'(New Unionism)<sup>4)</sup>의 물결은 TUC 내부에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1890년 TUC 총회에서는 '8시간 노동일의 입법'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 결의안이 통과된다. 이는 상충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보수적이고 타협적이며 조직보존에 몰두하던 TUC로서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했다. 이와 함께 지도부의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귀족의 대표격이던 브로드허스트가 1890년 사임했으며 신조합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윌슨(H. Wilson)과 번즈(J. Burns)가 TUC 의회위원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신조합주의의 승리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TUC내 최대 조직이었던 광부연맹이 바로 그 해에 TUC 회장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이전에는 모든 노조가 수적인 제한 없이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었고 이들 모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약개정으로 이제는 조합비를 내는 노조원의 비율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 것

---

즉 및 개혁 그리고 소득세와 국채의 전면 철폐를 추진하던 글래드스턴의 자유당에 우호적이었다.

4) 숙련공 중심의 폐쇄적인 직업별 노조주의에 반대하면서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시켰던 호흡을 일컫는다. 당시 신조합운동의 중심은 항만·해운, 가스, 철도, 광산 등에서 결성된 일반노동조합이었으며 일부는 산업별노동조합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편집자주) 大河内一男 編『勞動事典』(1965), 青林書院新社, p. 32 참조

이다. 이것은 기존의 대규모 노조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들 중 신조합주의에 우호적인 조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영국 노동운동 내부의 거대한 변화가 중단될 수는 없었다. 기존 노조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제기되었다. 1893년 TUC 총회에서 맥도날드(J. Macdonald)가 주장한 모든 생산과 분배수단의 집단소유와 통제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이어 1894년에는 하디(K. Hardie)에 의해 생산, 분배, 교환수단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또 모든 가입노조는 미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후보를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물론 이후 보수파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기층 노조원들 사이에 사회주의 내지는 독자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배층과의 타협과 하층 노동자와의 분리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던 수십 년간의 경향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비록 완전하고 충분한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추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자본의 공세, 자유당의 약화, 정치 및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그리고 TUC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판도 변화 등은 독자적인 노동자정당 결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성격을 가진 정당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력하게 남아있던 보수세력의 존재, 독자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의 불확실성, 정치활동에 있어서 노동조합 조직의 한계 등은 새로운 도전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조합운동으로 하여금 노동자정당을 추진하던 다른 세력들 - 주로 사회주의자 과의 연대를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정당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문제였다.

### 3. 노동당 건설의 주요한 협력자들

#### 1) 사회민주연맹(SDF)의 활동

1881년 6월 하인드만(H. Hyndman)을 중심으로 민주연맹(Democratic Federation)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강령은 보통선 거권, 상원폐지 등과 같이 1830, 40년대의 차티스트운동의 요구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었지만, 토지의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적 성격의 강령도 담고 있었다. 윌리엄 모리스(W. Morris), 박스(E. Bax), 엘레노어 막스(E. Marx)-칼 막스의 딸- 등 저명한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에 합류하였고 출판활동을 통해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1880년대는 사회주의의 부활기라 불릴 정도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민주연맹은 바로 이런 흐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민주연맹은 1884년 8월 사회민주연맹(Social Democratic Federation)으로 개칭한다.

그들은 소수의 토지귀족과 자본가들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빈곤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따라서 그 부의 수혜자는 노동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수단의 독점과 임노동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소수의 사적소유-노동자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를 공격한다. 그들은 국가가 주거지를 조성해 낮은 가격으로 노동자에게 임대할 것, 8시간 노동제, 누진세, 철도와 토지의 국유화 등을 구체적인 요구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주의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이질적이고 통일되지 못한 요소가 섞여 있었다. 구성원에 있어서도 의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 반의회적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혼재한 상황이었다. 비록 초기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이나 현존 질서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간의 간격은 더욱 커져갔다. 특히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분열을 놓고 말았다. 1884년 모리스를 중심으로 한 일파가 사회주의자동맹(Socialist League)을 결성하고 사회민주연맹을 탈퇴했지만 두 단체 모두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이후 하인드만의 지도하에 1886년 실업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1888년의 신조합주의운동, 1889년의 부두노동자의 대파업에서 사회민주연맹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대중적 영향력은 미미했다. 1885년 이래 총선에 참여한 사회민주연맹은 단 한 명의 당선 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이는 사회민주연맹과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회민주연맹이 노조를 보는 입장도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계급투쟁을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와의 타협을 넘어 동맹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었다. 비록 이후 노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노조에 들어가서 내부를 개혁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기본적인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노동자계급 출신이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자가 아닌 후보는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모든 외부 조직과는 절대 동맹관계를 맺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행동강령이었다. 즉 그들에게는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비사회주의 세력이 타도의 대상이었다.

한편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연맹의 지도자인 하인드만은 토리 가문 출신으로 민주연맹을 결성하기 이전에 보수당이 미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또 1885년의 선거에서 보수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까지 했다.<sup>5)</sup> 1898년 사회민주연맹의 연례총회 결의안에는 회원들의 투표가 자유당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자유당으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연맹의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태도와 연맹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이와 같은 우여곡절 속에서 더욱 깊어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은 물리적 힘을 통해서만 사회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사회민주연맹 회원들의 저술이나 연설에는 봉기나 혁명과 같은 과격한 어투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

5) Bevir는 하인드만의 사상적 배경을 급진적 보수주의에서 찾고 있다. M. Bevir, H.M.Hyndman : A Rereading and a Reassessment, i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12, 1991.

일반 노동자들의 정서와 거리가 있음이 분명했고 더욱이 보수적인 노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사회주의정당으로 자임하던 하인드만과 사회민주연맹의 이런 현실인식과 방법론에 대해 당시부터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sup>6)</sup> 그러한 비판들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있어서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이 독자정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때에도 사회민주연맹은 더 이상 그들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사회민주연맹은 뒤늦게 노조의 변화를 감지하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당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노동당의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

## 2) 페비안협회의 침투정책

사회민주연맹과는 다른 형태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단체가 1884년에 설립된 페비안협회(Fabian Society)이다. 협회는 결코 대중조직이 아니었고 소수의 문필가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출판과 강연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를 전파하고자 했다.

페비안의 기본 전술은 ‘침투와 보급정책’이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악은 산업사회의 결함과 잘못된 부의 분배에서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영국은 이미 민주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 민중의 정치적 힘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이 정치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

6)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비판은 하인드만에게 집중되었다. 좌파는 하인드만이 맹목적인 강경론을 표방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개량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톰 만은 하인드만이 노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노동계급 내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운동을 위해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Tom Mann, *Memoirs*, 1923, p56-58. 반면 우파의 비난은 하인드만이 너무 과격해서 노동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S.Pierson, *Marxism and the Origins of British Socialism*, 1973, p.64

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배세력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침투와 보급을 통해 이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종래에는 사회주의자로 변화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페비안의 방법론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현질서를 붕괴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창출한다는 것은 분파주의자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페비안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시드니 웹(S. Webb)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정치와 행정의 지도자들의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sup>7)</sup> 그는 50년전의 과거와 비교하면 보수당이나 자유당 모두 사회주의로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본질적으로 부와 특권을 누리는 ‘가진 자들의 정당’이므로 자유당보다 진보적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자유당, 특히 자유당내의 급진파는 사회개혁과 진보적 집산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의회나 국가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8)</sup> 그에게 있어서 미래의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체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복지국가의 형태였다.<sup>9)</sup>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효율성’이 그들의 정책 목표였던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 페비안은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독자적인 노동자정당의 출범에 반대한다. 노동자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은 파이를 먼저 만들고 나무는 뒤에 심자는 것이며,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버려둔 채 교조적인 사회주의의 조야한 추상만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sup>10)</sup> 이러한 페비안의 입장은 1893년 이후 자유당이 사회개혁과 복지법안의 입법을 거부하고 노동자정당에 대한 노동자의 열망이 분출되기 시작하자 잠시 태도를 바꾸기는 했으나 일년만

7) S. Pierson, 앞의 글, p.123.

8) S. Webb, *Socialism in England*, 1890, pp 121-124.

9) S. Webb, *Facts for Socialists*, 1887, p.15

10) G.B. Shaw, *Workman's Times*, 8 Oct. 1892.

에 다시 침투정책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페비안은 자신들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다. 나아가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보어전쟁에 대한 반대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결코 현실적이지 못했다. 페비안들은 영국의 정치적 전통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그 속에 자리잡을 수도 없었다. 자유당은 결코 페비안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양보를 가장한 것일 뿐 부르주아적 정당으로서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또한 페비안은 노동자계급의 흐름과도 함께 하지를 못했다. 1889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변화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노동자의 계급의식으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시켰다. 페비안의 태도는 보수적인 노조들의 '자유-노동' 동맹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노동당의 창당에 기여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노동진영을 분열시키고 노동당의 설립을 자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르주아적 정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민주연맹이나 독자적 노동정당운동을 분파활동이라 비난했던 페비안이 이들보다 더 분파적이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sup>11)</sup>

### 3) 독립노동당의 유연전술

사회민주연맹의 회원이던 챔피온(H. Champion)은 1886년과 1887년의 실업자시위를 주도한 후, 사회민주연맹의 방법론에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된다. 그는 군대가 가진 무기의 위력이 계속 커져가고 발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개선된 무기를 보유하거나 병사들이 노동자의 시위를 지지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sup>12)</sup> 따라서 사회민주연맹의 전투적 구호는 추상적이며

11) E.J. Hobsbawm, *Labouring Men*, 1964, p.264.

12) M. Beer, *A History of British Socialism*, p.264.에서 재인용.

더욱이 노동자에 대한 사회주의의 전파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700명의 회원으로 강고한 지배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챔피온의 견해에 동조한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모색하게 된다. 이들은 현실적 사회주의자로 불리게 된다.

이들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전통적인 태도에 주목한다. 여타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와 노조를 비판하고 이들에게 사회주의를 주입하고 전파하는데 역첨을 둔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현재 노동자들의 정서와 의식을 인정한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 즉 노동자들의 정치적인 활동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 성과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진보와 연결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노조는 경제적인 조직으로서 정치권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노조가 거둔 경제적인 성과는 불황 등 여러 조건에 의해 쉽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기존의 정치제도를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적인 결론이었다.

현실주의자를 중심으로 1893년 독립노동당이 설립되었을 때 당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이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명에 '사회주의'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노동자를 배려하는 한편, '노동'이라는 명칭을 통해 당의 입장이 노동자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사회주의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 선언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북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수당에, 런던과 기타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자유당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경향이 독자적인 노동자정당의 출현에 큰 장애물이었다. 거대한 기존 두 정당의 존재는 어떤 성향을 가졌던 간에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모색하던 사람들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독립노동당은 과감히 ‘독립’을 선언한다. 당시의 정당은 뚜렷한 강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나 특정 안건에 따라 그리고 당내 정파의 세력변화에 따라 입장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다.<sup>13)</sup> 그러므로 자본가를 위시한 기득권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노동자정당을 지지하도록 만들 것인가? 독립노동당은 이 양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를 노조와의 관계에서 찾았다. 이들의 인식에 따르면 독자성의 문제는 정당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의 확보, 즉 재정의 독립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한 개인이나 자본가로부터의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당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했다<sup>14)</sup>.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노동자계급 내에서 유일하게 기금의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노조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는 정당에 대한 노동자의 지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 따라서 독립노동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을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으려는 인식 하에서 전개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립노동당의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895년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낙선했으며 노조 또한 독립노동당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말았다. 다양한 내부구성과 전술적인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자였으며 사회주의가 영국사회와 노조에 자리잡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또 노조와의 협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회주의적인 정체성을 체손했고 원칙 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13) H. Pelling, *The Origins of British Labour Party*, 1954. 최재희, 염운옥 역, 「영국노동당의 기원」, p.86.

14) 독립노동당은 사회민주연맹이 분열을 거듭하고 성장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하인드만의 독단 때문이며 이는 연맹이 하인드만의 개인 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5. 영국노동당의 창당

그러나 1900년 마침내 TUC가 정치참여와 정당결성을 결정했을 때 독립노동당의 노력은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된다. TUC는 주된 협력대상으로 독립노동당을 선택했으며, 독립노동당은 TUC 정치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의 큰 흐름과 함께 하고 있었다. 노조와의 연대노력을 병행하면서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시도, 8시간 노동일의 제정운동 등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 1892년 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었던 하디는 전통적인 노동자 복장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실업자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이는 과거의 자유-노동파 의원들의 태도와 완연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하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립노동당원들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현실주의자들의 노력은 지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당시 각 사회주의조직이나 노동단체들의 중앙 지도부간에는 반목과 질시의 풍조가 만연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오히려 자유당과 보수당, 그리고 자본가에 맞선 공동행동과 협력의 움직임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독립노동당의 현실주의자들은 유연한 자세로 이들의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지방의 독립노동당원들은 사회민주연맹, 폐비안 협회, 심지어 보수적인 노조까지 포용할 수 있는 공동투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독립노동당의 노조와의 협력전술이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옳았던 것은 아니다. 독립노동당의 유연전술은 당내에서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강조하는 이들과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이들간의 갈등을 빈번하게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긴장을 통해서 그들은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임무를 현실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개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영국노동당의 결성에서 현실적 사회주의자들의 비중을 높여준 것은 바로 이한 노력과 전술의 결합을 통해 가능했다.

1900년 노동자대표위원회(Labour Representation Committee)라는 이름으로 영국노동당은 출범했다.<sup>15)</sup> 1903년 채택된 헌장은 당의 성격을 노동조합과 지역의 노동단체, 독립노동당, 사회주의 단체, 협동조합들의 연합체로만 정의하고 있었다. 이 속에서 당의 성격과 노선에 관한 -주로 당이 사회주의 대중조직이냐 또는 당의 역할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에만 한정할 것이냐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도 지속되었다.<sup>16)</sup> 그러나 노동당의 지도자가 된 하디는 그들의 운동이 구를수록 커져가는 눈덩이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노선은 시대상황과 구성인자에 따라 그리고 당내 제 분파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한 정파가 다른 정파를 이념적으로 압도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어떤 투쟁이나 갈등도 그것이 전개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는 공동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1918년 영국노동당은 사회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한다. 노동사회연구

## 참고문헌

- Beer. M, A History of British Socialism.
- Benn. C, Keir Hardie. 1992.
- Bevir. M, H.M. Hyndman : A Rereading and a Reassessment, i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12. 1991
- Blackburn. R ed), Ideology in Social Science, 1979.
- Clegg. H & F. A & T. A, A History of British Trade Unions since 1889. 1962.
- Cole. G.D.H, 영국노동운동사, 광민사, 1980.

15) 노동당(Labour Party)으로 당의 공식명칭을 정한 것은 1906년의 일이었다.

16) 사회민주연맹은 노동자대표위원회가 사회주의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비난하면서 1901년 탈퇴를 결정한다. 그러나 결성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당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은 대단히 작았고, 이후 노동자대중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 Hyndman. H, The Record of a Adventurous Life. 1911.
- Laybourn. K, The Labour Party 1881-1951. 1988.
- \_\_\_\_\_, & Reynolds. J, Liberalism and the Rise of Labour 1890-1918. Croom Helm. 1984.
- Morgan. K, Keir Hardie. 1975.
- Pelling. H, The Origin of the British Labour Party. 1954., 최재희, 염운  
옥 역, 『영국노동당의 기원』
- Pierson. S, Marxism and the Origins of British Socialism, 1973
- Roberts. B.C, The Trade Union Congress 1868-1921. 1958.
- Tsuzuki. Ch, H.M. Hyndman and British Socialism. 1961.
- Webb. S, Socialism in England. 1890.
- \_\_\_\_\_, Facts for Socialists. 1887.
- Webb. S & B, 영국노동조합운동사. 형성사. 1990.